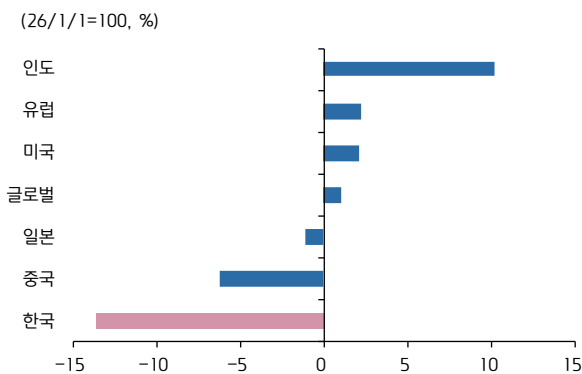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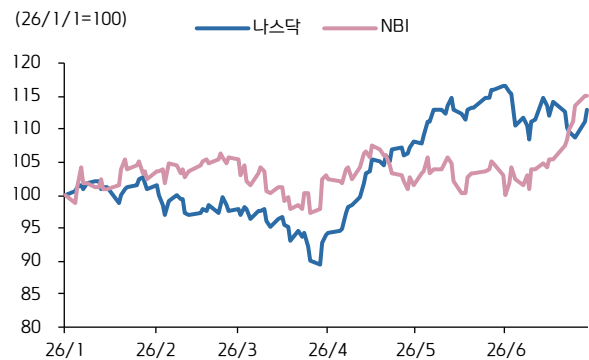
상반기 제약/바이오 섹터는 극심한 수급 소외 현상을 겪으며, 주요 국가별 MSCI 헬스케어 지수 수익률에서도 가장 부진. 추세적 반등을 위해서는 sollimwanhwa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 입증도 필요. 10월경 유한양행과 애플론의 1차 치료제 신약의 주요 데이터 및 아리바이오의 알츠하이머 3상 탑라인 발표 예정. 4분기 섹터의 본격 반등 예상하나, 7월 코오롱티슈진과 HLB의 긍정적인 결과 확인된다면 섹터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 실패한다해도 개별 종목 이슈에 그칠 것.

2026년 이후, 국가별 MSCI Healthcare Index 수익률



주: 2026/6/30일 기준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이후,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지수(NBI) 수익률



주: 2026/6/30일 기준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상반기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 소외되며,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헬스케어 지수에서도 부진으로 나타남

>> 2026년 상반기 주요 국가별 MSCI 헬스케어 지수 수익률을 살펴보면, **한국 MSCI 헬스케어 지수 -14%로 가장 부진.** 미국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NBI)는 +15% 상승하며 나스닥 +13% 상승을 +2%p 아웃퍼폼. 반면, 코스닥 제약지수 -20%로 코스닥 -1%를 -19%p 언더퍼폼.

>> 미국은 타섹터 sollim에도 바이오텍 M&A 등 거래 활성화로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 역사적 신고가** 기록.

◎ 과도한 타섹터 sollim이 주요 원인 중 하나. 섹터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으며, 시장은 계속해서 확인을 원함.

>> K-BIO는 기술 수출과 임상 데이터 발표, M&A 등의 호재에도 타섹터 sollim으로 소외. 하반기 sollim 완화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과 임상 데이터 입증, 파트너쉽 성과 등 확인된다면, 바닥을 다지고 추세적 반등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예, 과거 섹터 추세 상승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셀트리온의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 스토리 부각)

◎ 언제 확인이 가능할까?

>> 7월 코오롱티슈진 3상 무릎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TG-C의 3상 결과 발표와 HLB의 리보세라닙 FDA 신약 허가 결정 PDUFA(7/23일) 예정.

7월 주요 이벤트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할 경우, 섹터에 대한 신뢰도 향상되며 섹터 회복이 당겨질 수 있음.

섹터에 우호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이오 섹터 투자 심리는 이미 악화될 대로 저하 되어있어 섹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보다 중복 개별 이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다만, 섹터의 신뢰 회복과 반등에는 다음 이벤트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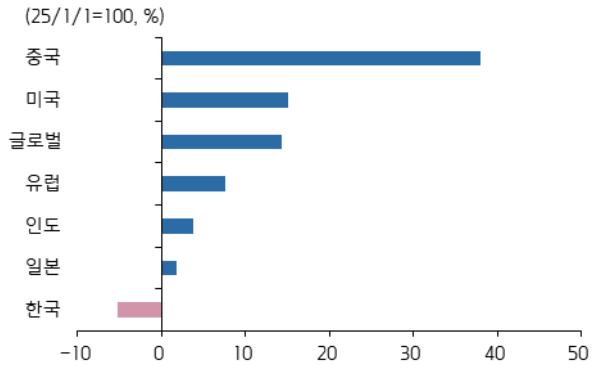
>> 이후 주요 섹터 회복 이벤트로 기대해볼 만한 시점은 10월경임.

10월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1차 치료제들의 데이터 발표가 예정 되어있어, K-BIO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음.

- J&J/유한양행/오스코텍의 폐암 1차 치료제 렉라자 병용요법 최종 생존(mOS) 데이터,
- 헨리우스/애플클론 HLX22 유방암 1차 치료제 2상
- 이 밖에도 코오롱티슈진의 두 번째 3상 결과 10~11월경, 포순/아리바이오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3상 탐라인(10월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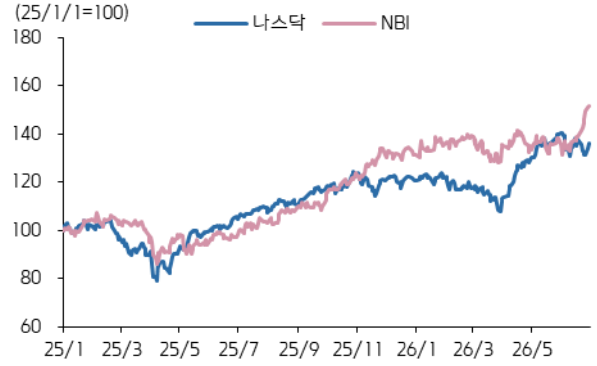
>> 주요 임상 데이터 발표 외에도 파트너십을 목표로 하는 주요 바이오텍사들의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 성과 또한 기대.

2025년 이후, 국가별 MSCI Healthcare Index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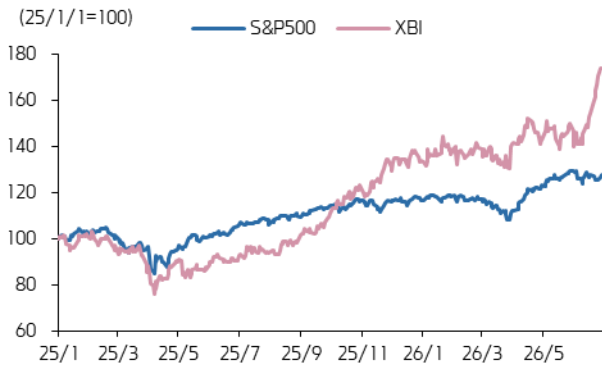
주: 2026/6/30일 기준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이후,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지수(NBI)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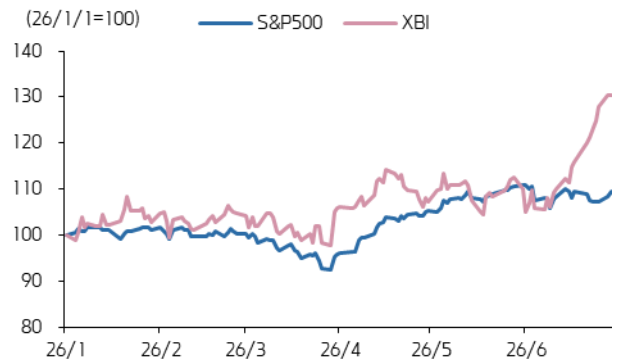
주: 2026/6/30일 기준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이후, SPDR S&P Biotech ETF(XBI) 수익률



주: 2026/6/30일 기준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이후, SPDR S&P Biotech ETF(XBI) 수익률



주: 2026/6/30일 기준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2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